

해외파 총동원 벤투호의 특명 '선제골'

2일 저녁 이라크와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격돌 중동 '침대 축구' 피하려면 선제골·다득점 필수

'침대 축구'는 핑계일 뿐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상대가 그라운드에서 누울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른 선제골과 다득점이 필요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2일 오후 8시 서 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0위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를 펼친다. 레바논과 2차전은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벤투호는 지난 6월 마무리된 2차 예선에서 6전 무패(5승 1무·2득점 1실점) 행진을 앞세워 당당히 조 1위로 최종예선에 진출하며 10회 연

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FIFA 랭킹 36위인 한국은 최종예선 B조에서 이란(26위), 아랍에미리트(UAE·68위), 이라크, 시리아(80위), 레바논(98위)과 한 조에 묶여 1~2위 팀에 주어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벤투호는 최종예선 1, 2차전 홈 경기를 위해 손흥민(토트넘), 황희조(보르도),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문환(LAFC), 황인범(루빈 카잔), 남태희(알두하일) 등 핵심 해외파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여기에 최근 K리그 무대에서 발끝 감각이 붙어 오른 이동경(울산)을

비롯해 조규성(김천), 송민규(전북) 등 젊은 K리그 공격수들과 이용(전북), 홍철(울산), 박지수(김천) 등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들도 호출했다.

최종예선은 매 경기 가 결승전으로 생각될 만큼 승점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패배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라크와 최종예선 첫 대결 결과는 대표팀의 사기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만 한다. 벤투 감독 역시 이라크전 중요성 때문에 '해외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은 이라크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7승 11무 2패로 앞선다. 1984년 4월 LA올림픽 최종예선전에서 0-1로 패한 이후 한국은 최근 10경기(4승 6무) 동안 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라크 대표팀의 사령탑

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본선 무대에 나섰던 디 아드보카트(네덜란드) 감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명장'으로 손꼽히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성향을 볼 때 한국을 상대로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 이라크 선수들 역시 중동의 강팀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만큼 벤투호와 강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벤투호는 혹사라도 모를 '침대 축구'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 선제골이 중요하다.

중동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남태희(알두하일)도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집중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오면 꼭 득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벤투 감독은 이라크전 승리를 위해 A매치 경험이 풍부한 손흥민과 황희조를 비롯해 '베스트 11'을 총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4시간 48분의 점전 3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3위·그리스)가 앤디 머리(11위·영국)를 상대로 4시간 48분의 혈투 끝에 3-2로 역전승하고 2회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세계 축구 이적시장 10년간 56조원 오갔다

'가장 큰 손'은 맨체스터 시티

지난 10년간 세계 축구 이적시장에서 해외 선수영입을 위해 오간 금액이 우리 돈 5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들의 해외 이적 관리를 위한 '이적 매칭 시스템(TMS)' 상의 정보를 토대로 30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축구의 총 국제 이적료 규모는 485억 달러(약 56조5461억원)였다.

10년간 국제 이적 및 임대 건수는 총 13만3225건으로 집계됐다.

200개국의 6만6789명의 선수, 8264개 클럽이 이 기간 국제 이적에

관여했다고 FIFA는 전했다.

선수의 국적에 따라 나누면 브라질 출신 선수의 국제 이적이 1만 5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헨티나 7444건, 영국 5523건, 프랑스 5027건 등이었다. 한국 선수는 1203건으로 전체 29위에 해당했다.

클럽 단위로 보면 국제 이적료를 가장 많이 쓴 30개 국가는 모두 유럽 팀이었다. 이들이 쓴 이적료만 전체의 47%인 228억 달러였다.

가장 '큰 손'은 맨체스터 시티(맨 시티)였고, 이어 첼시(이상 잉글랜드), FC 바르셀로나(스페인),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순이었다. 클럽별 액수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국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 이도연이 31일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국제스피드웨이어에서 치러진 2020 도쿄 패럴림픽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스프리즈 등급 H4-5)에서 역주하고 있다. 이도연은 55분42초91로 결승선을 통과해 12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도연 "진짜 죽을 만큼 달렸어요"

도로독주 10위로 결승선 통과 오늘 개인도로서 메달 재도전

"진짜 죽을 만큼 달렸어요." 한국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의 '철인' 이도연(49)은 31일 도로독주에서 55분이 넘는 질주를 마치고 눈물을 쏟았다.

이도연은 이날 오전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국제스피드웨이어에서 치러진 2020 도쿄패럴림픽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스프리즈 등급 H4-5)에서 55분42초91을 기록, 전체 12명 중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도연은 첫 패럴림픽이던 2016년 리우 대회에서 사이클 개인도로 은

메달을 획득했고, 도로독주에선 4위에 올랐었다.

도전을 즐기는 그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노르딕 스키 선수로 전향해 출전한 전 종목을 완주하기도 했다.

49세의 나이에 도쿄 대회에 출전한 이도연은 이날도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난코스 에에 먹었다.

레이스를 마칠 때면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던 '철의 여인'은 도쿄에선 눈물을 보였다.

"성적을 내야 하는데... 미안해요"를 연발하는 그의 고글 아래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도연은 "지금까지 한 레이스 중 최고로 어려운 난이도였다. 한국에서 지도자 선생님을 말을 듣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정말 게름 없이 훈련했는데 너무 벅찬 코스였나보다"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분명 최선은 다했다. 그는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며 "내리막은 어떻게든 할 수 있었는데, 오르막 경사가 너무 많아 극복할 수 없었다"고 털어냈다.

경기 뒤 보인 눈물에 대해서는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 달리면서 정말 죽음까지 갈 정도로 힘들었다. 그만큼 열심히 달렸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이도연은 "달리면서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께서 자전거 폴셋트를 해주셨고, 항상 메달 따는 걸 기대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셨다.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첫 레이스를 마친 이도연은 1일 여자 개인도로(H1-4)에, 2일에는 혼성 단체전 계주(H1-5)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이강인 마요르카행... 4년 계약 일본 기대주 '구보'와 한솔밥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와 10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20)의 새로운 동지가 RCD 마요르카(스페인)로 결정됐다.

마요르카는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렌시아와 계약을 끝낸 이강인과 4년 계약을 했다"라며 "자유계약(FA)으로 2025년까지 계약한 이강인을 즐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 "이강인은 10살 때 발렌시아에 합류해서 성장했고, 17살 때 1군에 데뷔해 62경기를 뛰면서 3골을 넣었다. 구단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



이강인이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에 새 동지를 틀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임대로 팀에 합류한 일본 축구 기대주 구보 다케후사(20)와 한솔밥을 먹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동글내기 우정'을 펼치게 됐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요 보직인 이강인은 측면 날개로 주로 뛰는 구보와 공격라인에서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민광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셀과 함께 스페셜 11:50 1020세대가 본 KBS 11:55 스포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모노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코모노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아도 꿀꿀(재) 10:00 인민광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향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30 꾸러기 식사교실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로라퍼니 9:10 종로스타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예나그날리 11:30 헬로커피 10 11:45 에나메이션 런닝맨 2	8:00 딩동댕 유치원 8:30 한결물사 아이야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후의 요리비결 13:00 일단 해봐요 15:25 클라세 16:00 마사랑 공 16:30 동동명 유치원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19:05 마스터 미구 19:35 자이언트 팽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네트워크 특선 이스트 라이프 13:50 근대사 100년, 그들의중언 13:55 온갖이웃 5분 레시피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열린채널 15:10 시청자주간 특집 감사 음악회 16:00 시사연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맑은 제주	12:15 2020 도쿄 패럴림픽 육상(보치아)탁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브랜드 이발소(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 17:00 또봇V 우주소대 17:15 중앙중앙 인물들 17:30 골질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처치평평 시즌3 12:5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3:20 2시 뉴스 워진 14:50 2020 도쿄패럴림픽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시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흥찬기(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팔도강산 GoGo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전국 TOP10 기요소(재)	7:00 길터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에게 감성충만이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영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섬 15:00 CBS 뉴스 17:05 시사예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진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2021 시청자주간 특집 매일 그대와 KBS 20:30 속아도 꿀꿀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스페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별강 구우 20: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21:30 랜선 장터 22:40 표리부동 23:50 스튜디오 K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제24회 제주 수어연예대회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구해줘! 속스 22:30 라디오스타	18:50 JIBS 특집 제24회 제주 수어연예대회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매리는 그녀들 22:40 백중원의 골목식당	8:30 할인래퍼, 이어도사나 9:00 KCTV 뉴스 9:3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0:30 세계의 99박상 13:10 KCTV 다류스페셜 14:00 할인래퍼, 이어도사나 15: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6:00 제주도농업기술원영농교육 18:00 할인래퍼, 이어도사나 19:00 KCTV 뉴스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0:50 UHD 제주산책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일

김종상 지단(호미)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창업,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융화를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개 이동에 김, 여행(출장)할 일이 생긴다. 54년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양보와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성 관계를 분할화함.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한 날. 늘 지출이 생긴다.
	37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49년 시비 구설이 오니 언행을 피하고 질투하지 마라. 61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끊임없이 분주하다. 73년 뜻밖에 희소식이 기다린다. 약속 시간 엄수하여 제시간에 도착이 중요. 85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 소지가 많으니 언행을 조심하는 게 좋다.
	43년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하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치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행을 조심하라. 91년 다투면 오래గా, 즉시 화해하거나 오해 없도록 자비를 피하라.
	38년 가족 모임이 구성되거나 친구모임이 있다. 차는 두고 가라. 50년 동창 모임이 있다. 귀가는 늦지 않도록.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된다. 62년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고 배려한다. 76년 외출 또는 여행할 일이 있다. 차량유진은 조심. 88년 내 생각을 적극 추진하라. 운은 내가 쥐는 것이니 활동하라.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 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의식과 의욕이 강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이 진전되고 희망도 있다.
	39년 허던 일이 안 풀리면 잠시 휴식 필요. 모임도 원만. 51년 자식에 의한 애경사가 있다. 상의가 있고.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외의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0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 시 과소비 주의. 52년 자기사업을 한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 64년 인생이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언행을 하지마라. 76년 전문직 중사 또는 여행을 창조하는 분야는 좋은 소식 있다. 88년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4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 유리. 53년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읍주는 자제. 65년 상대자와 인성이나 다툼은 피할 것. 내 자량만큼 자금지출과 일치. 77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 소식이 오면 만나라. 89년 유희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때론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육신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혼자 결혼 추진 적극 임하라. 81년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93년 진정을 생활화 하라. 멀어진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6년 몸이 이상히 오거나 구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휴식을 취하고자 해도 내일이 산적해 있다. 집안 일에 치중하라. 70년 여행 또는 외출을 하거나 손님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주선되거나 친구를 축하하러 가게 된다. 패션을 초점을 맞춰라.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거나 회 회복된다.
	47년 금한번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장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고민, 자식의 문제도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질투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 노력해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5년 결실을 거둔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